미래 해양산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도시

세계인이 찾는 특급 국제관광도시

최첨단 물류, 교통, 문화의 리더

환태평양 경제의 중추

부산광역시

세계 도시, 부산의 품격과 자부심을 높이겠습니다.

1. 강서지역 첨단·물류산업도시 건설
2. 부산-규슈 초광역경제권 조성
3. 1급수 원수의 수돗물 공급을 통한 Aqua City 구현
4. 동북아 허브항만 및 해양중심도시 육성(북항 재개발지원)
5. 아시아 영상·영화·문화 중심도시 Project 추진
6. 하계올림픽유치 적극 지원
7. 동남권 신공항(국제공항) 건설·유치
8. 국제선용품유통센터 건립
9. 동부산 해양문화관광단지 및 워터프런트의 관광자원화 추진
10.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세계 도시,
부산의 품격과
자부심을 높이겠습니다.

강서지역 첨단·물류산업도시 건설

강서지역에 Sea & Air Park를 조성해 공항과 항만을 연계한 고부가가치 물류를 창출하여 부산을 동북아의 물류허브도시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적의 입지 여건을 보유하고 있는 강서지역을 첨단산업, 물류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항만과 공항의 배후기능 확충이 시급합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동남권 산업클러스터 등과 연계한 국제물류유통거점이 필요하며, 신항만과 배후물류클러스터, 산업클러스터의 연계강화를 통한 친생태환경의 첨단·물류산업도시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공약

복합물류센터 건립

- 고부가가치 차세대 Sea&Air 물류가공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 첨단물류기능의 차세대 항만물류시스템, 첨단물류기술연구소 설립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복합물류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복합물류가공 단지 100만 평, 복합물류센터 30만 평)



부산–규슈 초광역경제권 조성

동북아시아 경제환경의 급변은 거대도시지역(Mega-city region)의 경쟁과 국가별 도시협력체제구축 현상을 촉발시켰습니다.

동북아경제권은 크게 중국의 3대권역(보하이, 창장강, 주장강경제권)과 일본의 3대 권역(간사이, 주부, 간토경제권) 외에 한국 수도권이 있으나 부산·규슈 권역은 경제력과 영향력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초광역경제권을 형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공약

'초광역경제협력기구' 설립

- 규슈지역과의 윈–윈 전략을 통해 실질적 상호협력체제의 지역경제 공동체를 구축하여 '초광역경제협력기구'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 부산·규슈공동협력체 구성, 부산·규슈벤처마켓, 부산·규슈기술이전센터 설치, 부산·규슈 IT기술 공동연구 및 융합화센터 건립 등 교류·협력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 증권선물거래소(KRX), 선박, 해운, 물류 등 지역 특화금융산업 발전을 통해 동남권과 규슈지역을 아우르는 금융허브를 구축하겠습니다.
- 부산·규슈 공동관광, 국제회의 공동개최, 문화이벤트 공동주최, 국제메디컬센터 설치, 교통카드 공동사용 등 비경제분야의 협력 및 교류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1급수 원수의 수돗물 공급을 통한 Aqua City 구현

부산 취수원인 물금지역의 연평균 BOD는 2급수, 갈수기인 1월의 BOD는 3급수입니다. 엄청난 비용을 투입했음에도 수질 개선 효과가 미미하여 부산시민들의 수돗물 음용률이 0.6%에 불과할 정도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강한 실정입니다.

부산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수돗물에 대해 광역상수원의 질 개선, 대체상수원 확보,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책공약

수자원 확보

- 체계적인 유역관리로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역상수도, 강변여과수 식수전용댐 등 비상대체 상수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기존 취수원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식수원의 질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동북아 허브항만 및 해양중심도시 육성(북항 재개발지원)

중국, 일본 등은 허브 항만 선점을 위해 항만시설의 대대적인 확충을 추진함으로써 동북아 항만물류 선점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부산신항도 항만관련시설 확충과 항만물류산업 육성, 글로벌 수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부산을 세계적인 고부가가치 항만물류의 중심지 및 동북아의 해양중심도시로 육성해야 합니다.

부산 신항개발로 인하여 부산 역내 항만기능이 약화됨으로써 북항을 중심으로 한 항만 재개발을 계획대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공약

신항 배후부지 확대 조성

- 해양중심도시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부산을 동북아 해양도시들과 경쟁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2013년까지 신항 배후부지 물류용지 93만 평 조성, 서낙동강권역 물류단지 확대, 추가 물류지역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신항·북항 연결 항만 배후도로는 신항 개장 시기인 2011년까지 완공하고 항만 배후도로의 적기 완공을 위해 국비지원 구간, 항만 배후도로 관련 정책지원을 하겠습니다.
- 국내 최초의 항만재개발사업이라는 차원에서 북항 재개발사업의 조기 착공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 및 기반조성 공사를 최대한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지원하겠습니다.

아시아 영상·영화·문화 중심도시 Project 추진

1996년부터 개최한 부산국제영화제가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성장하였고, 전국의 50%에 육박하는 영화촬영(연평균 40편 이상) 도시로서, 세계적인 영화·영상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전략산업인 영상·영화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부산의 자랑인 부산국제영화제와 영화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아시아 최대 영상·영화의 중심도시로 육성해야 합니다. 특히 해운대구 센텀시티 일원의 '문화산업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공약

아태영상대학 설립

-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영화·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한 내생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 국립아시아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기장 '영화·영상 빌리지'를 조성하고, 부산으로 이전이 확정된 남양주종합촬영소를 확대 이전하여 아시아 최대의 영화종합촬영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세계의 영화·영상 인재가 모이는 아·태영상대학을 설립(지역대학 공동설립 또는 독자 대학 설립), 영상·영화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입주할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등 입주 문화콘텐츠업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하계올림픽 유치 적극지원

부산은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경기장 등 사회기반시설과 대회운영에 필요한 풍부한 인적자원 및 운영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관심사인 2020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해 대한민국의 역량을 세계에 펼침은 물론 부산을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시안게임, 월드컵, APEC 개최 후 올림픽 유치에 대한 시민 의지가 확산되는 시점에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세계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하계올림픽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량을 세계에 과시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외교력 강화는 물론, 전 국민이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책공약

하계올림픽유치단 조기 발족

-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유치 성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전략적 플랜을 수립하는 한편 중앙정부 차원의 하계올림픽 유치단을 발족하겠습니다.
- 타 경쟁도시에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유치단을 중심으로 한 조기 유치준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국제공항) 건설 · 유치

신공항은 인천국제공항에 대응한 남부권의 국제공항으로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지역의 항공여객 및 항공물류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남권 항공화물 대부분이 인천공항을 통해 수출됨으로써 막대한 물류비가 소요되고, 그로 인해 수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항만별 수출은 동남권 주요 3항(부산항, 울산항, 광양항)이 63%를 점유하고 있는 데 반해, 주요 공항별 수출은 대부분이 인천공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인천 99%, 김해 0.5%)

특히 동남권에서 인천공항 이용에 따른 비용이 날로 증가하고 Sea & Air 복합수송체계의 미비로 세계물류전쟁에서 우위 선점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책공약

각계 의견이 수렴된 공항 건설

- 공항의 규모는 국제공항의 시설배치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최종 목표 연도 기준 320만 평(4,800m × 2,200m)~500만 평 규모로 단계별로 건설하겠습니다.
- 후보지 선정은 사업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향후 핵심추진 과정으로 동남권 관련 시 · 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선정하겠습니다.

국제선용품유통센터 건립

선박에 공급하는 물품공급업을 집적화해 재고비용의 감소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과 유통 및 공급경로의 개선, 제품의 다양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항 국제선용품유통센터를 건립해 국제선용품공급업체의 가격경쟁력과 제품브랜드 파워를 향상시켜 국제선용품 시장을 활성화하고 부산항의 부가가치를 증대해야 합니다.

영세업체 난립 방지와 비합리적인 국제선용품 유통구조의 개선으로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업체 집적화에 따른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유도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선용품 공급시장의 우위를 선점토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공약

국제선용품유통센터 건립

- 선박용품공급업체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제품브랜드 파워를 향상시키겠습니다.
- 국제선용품 유통 및 공급경로를 개선하고 제품을 다양화하는 데 지원하겠습니다.
- 국제선용품 시장활성화 및 부산항의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 영세업체의 난립 방지와 비합리적인 국제선용품 유통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 운영비용 절감과 업체집적화로 국제선용품 공급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동부산 해양문화관광단지 및 워터프런트의 관광자원화 추진

국민관광 수요의 증가 및 여가 관련 산업의 여건이 성숙된 국민관광시대를 맞이함으로써 관광산업이 국제수지의 전략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울산, 양산, 해운대, 정관신도시 등과 연계하여 기장군 일원에 해양도시의 자연적·입지적 잠재력을 부각시킬 수 있는 관광요소를 개발할 필요성이 커져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등이 진행 중입니다.

부산의 국제해양문화·관광기능을 담당하게 될 공간적 기능지역으로 해양문화와 밀접한 동부산이 최적지이며, 오륙도·영도·송도·다대포 등의 해양관광벨트화로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부족한 관광·컨벤션 인프라를 확충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부산이 세계인이 찾는 관광·컨벤션도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책공약

국제관광비즈니스 클러스터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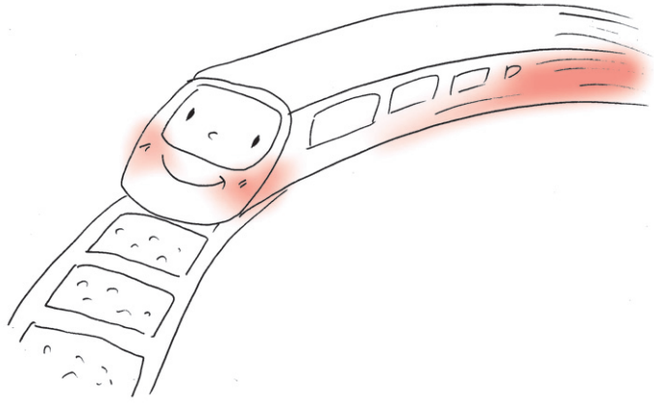
-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변리, 시랑리 일원에 108만 평 규모의 해양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테마파크, 호텔, 어뮤즈먼트파크, 스파파크, 상업시설 등의 건립)
- 일광, 좌천, 장안 등지에 해양스포츠를 비롯한 관광레저기능군을 입지시켜 해양문화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 관광단지 내 공공시설 입지는 주변의 토지이용, 위치, 기능상의 배분과 연계성을 감안하여 경관훼손을 최소화해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자연적·전원적 해양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 두바이랜드 등과 같은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유치하는 데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 도심 워터프런트의 관광자원화로 기장·해운대·광안리·영도·송도·다대포에 이르는 도심 워터프런트지역의 관광벨트화, 오륙도 친생태관광파크, 송도지역 해양테마파크 등을 설립하겠습니다.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현재 부산·울산·경남지역은 전국 제2의 광역도시권으로서 밀접하게 연계성을 맺고 있으나 부산과 경남권간의 연계도로망이 미비해 극심한 교통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을 우회하는 간선도로망이 없어 부산 외곽 통행차량이 부산 시내를 경유함으로써 도시의 교통체증 및 통행거리 증가에 따른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1996년부터 약 10년간 순환고속도로건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 타당성 검토가 이뤄졌으나 도로건설 시행의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책공약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 서부산권과 동부산권 등 신흥개발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도심지를 통과하지 않고 시 외곽으로 흡수할 수 있는 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 부산·경남권 연계도로망 부족에 따른 극심한 교통난의 해소와 물류 절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해당 구간은 강서 녹산·부산 서쪽 시계·김해/양산시 외곽·부산 북쪽 시계·기장 청강리(부산·울산간 고속도로)로, 59.9km의 6차로 도로를 연장하겠습니다.
- 현재 도로건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지체되고 있으나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재정적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